

Thematic Radar

Ep. 38 스테이블코인 경쟁 개시: 정책 지원 강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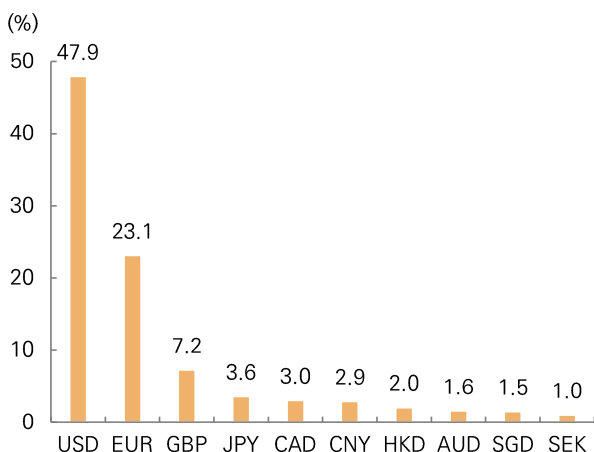
-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한 미국 관점에서는 불편한 전개
- 중국 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 중. 향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가능성 높음
- 미국은 달러 점유율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전망.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관심 유지 필요

최근 미국 외 국가들에서 각자의 화폐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발행되고 있으며 일본도 3분기 내 엔화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중국도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국 국무원은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에 관련 내용을 담아 심의 후 8월말에 승인할 예정으로, 가상자산이 전면 금지됐던 2021년 이후의 강경 스탠스가 완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인데, 글로벌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밑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경쟁국들의 노력으로 스테이블코인 중 달러 비중도 낮아질 여지가 있다.

특히 경제적 라이벌 국가인 중국이 특히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위안화의 국제 거래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전통적 금융 결제망 대신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IMF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중국으로의 스테이블코인 유입은 840억 달러, 유출은 691억 달러로 추정된다. 국가간 거래에서도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는 등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정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국가간 석유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는 '페트로위안' 등의 방식을 도입한 경력이 있다.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이 크게 늘었는데, 러시아가 미국, EU의 금융 제재로 인해 전통적 결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2024년 기준 양국 거래의 90%가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되었다.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와 같은 국제 거래 경로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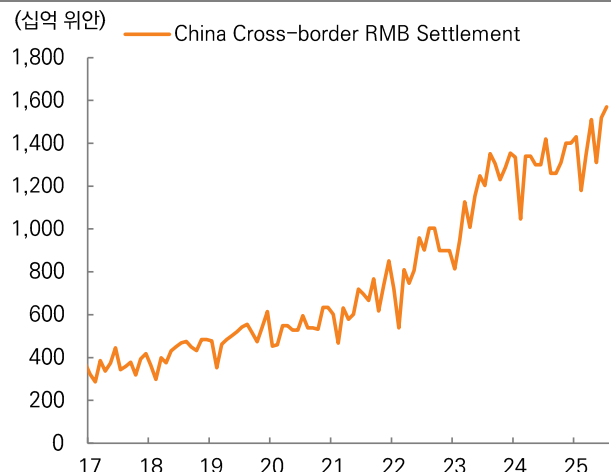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에서 달러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통해 미국 채권 수요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하원에서만 통과됐던 CLARITY Act, Anti-CBDC Act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금융 기관들의 개입 범위, 소비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서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시작된 만큼, 관련 법안들의 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글로벌 결제 시장 통화 비중



자료: SWIF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 2025년 7월 기준

그림 2. 중국 국가 간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